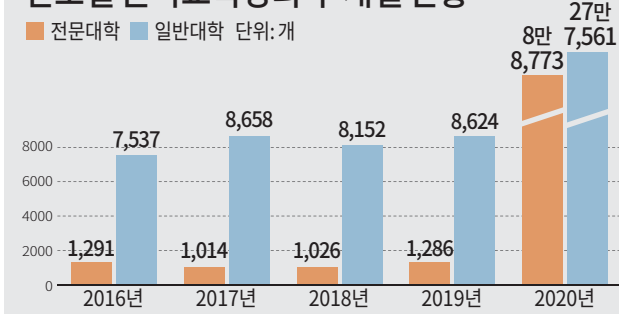


전문대 원격강좌 4년새 67배 ↑... 창업지원금은 반으로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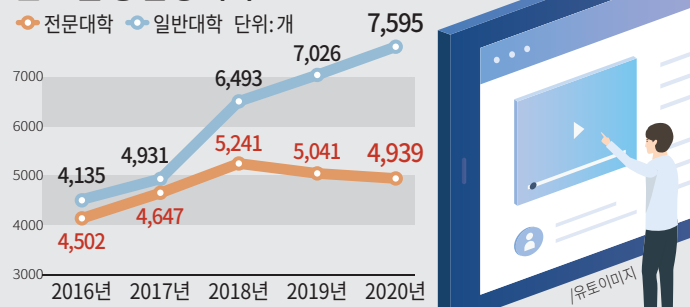
전문대교협 고등직업연구소
원격강좌 수강인원은 24배 증가
비용·코로나 탓에 현장실습 줄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9.7%p ↑

전문대 창업 258개, 25%늘었지만
지원액 124억→61억 절반 줄어

연도별 원격교육강좌 수 개설 현황



연도별 창업강좌 수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원격강좌 수가 4년간 6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문대 학생 현장 실습이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실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20명 이하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은 증가했다.

1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연구소의 '2021년 상반기 대학 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립전문대학 원격강좌 수는 2016년 1291개에서 2020년 8만8773개로 6776% 증가했다. 원격강좌 수강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13만4417명에서 336만7109명으로 2404% 증가했다.

전문대학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립전문대학 전체 학생 43만5056명 중 5.9%인 2만5483명이 4주의 현장실습을 이수했으며 ▲8주 1169명 ▲12주 이상은 2520명이 이수했다. 최근 3년 현장실습은 감소하고 있

다. 이는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문제로 대학이나 기업에서 현장실습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크게 늘었다. 2016년 23.2%에서 2021년 32.9%로 9.7%p 상승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실습과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규모 대면 강좌 개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전문대학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참여는 2016년 3만7918명(8.3%)에서 2020년 6만8810명(15.8%)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대학이 8.1%에서 9.8%로 증가해 전문대학의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금, 일반대 82% 수준...전임교원 강의 비율 매년 증가

2021년 기준 사립전문대학 등록금은

사립일반대학 등록금 평균인 82.2% 595만9000원 수준이다. 계열별로는 사립전문대학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522만5000원으로, 사립일반대학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632만6000원의 82.5% 수준이다. 이어 ▲자연과학계열 79% ▲예체능계열 76.9% ▲공학계열 74.1% 순으로 공학계열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2016년 45.7%에서 2021년 50.7%로 증가했다. 사립일반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년 지속해서 증가돼 교육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1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8만6176명(59.7%) ▲특성화고 3만2669명

(22.6%) ▲자율고 6654명(4.6%) ▲특수목적고 2196명(1.5%) ▲기타 1만6595명(11.5%)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성화고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일반고학생 비율은 감소했다.

◆교원·학생 창업 늘지만, 지원은 감소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을 보면, 교원 창업기업은 사립일반대학은 2016년에서 2020년 763개에서 1253개(64.2%)로 대폭 증가한 데 비해, 전문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9개에서 17개로 8개 증가했다.

학생 창업기업도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이 크게 못 미쳤다. 사립전문대 학생 창업기업은 2016년 207개에서 2020년 258개(24.6%)로 증가했고, 사립일반대학은 763개에서 1253개(64.2%)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창업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 측의 창업지

원액은 크게 줄어 한계를 보였다. 전문대학 창업지원액은 2016년 123억7500만원에서 2020년 60억1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립일반대학의 창업지원액은 2016년 692억70만원에서 2020년 1110억2000만원으로 60.4%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 창업강좌 수는 2016년 4135개에서 2020년 4939개로 19.4% 증가 개설했지만,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13만2915명에서 13만2513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일반대학 창업강좌 수는 2016년 4622개에서 2020년 7844개로 69.7% 증가하여 개설했으며, 창업이수자 수는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5년간의 지표분석 결과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일반대학과 차이는 미세하나마 더 벌어졌다"며 "현장실습 감소와 일반대학보다 열악한 창업환경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문대학 교육의 강점인 계약학과, 주부식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중심 교육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고, 소규모 강좌 비율이나, 전임교원 담당 비율 등 수업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육안 확인' 잔류농약 진단기술 개발

인하대 생명공학과-농촌진흥청

인하대학교는 허윤석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미화 연구관 연구팀, 강성민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실시간 현장진단이 가능한 잔류농약 검출용 비색센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에서 잔류농약을 진단하는 비색 감지전략은 사람의 육안으로 비색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농약의

잔류를 판별할 수 있는 1차 조기진단 모니터링 기술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비색측정 원리들과 분석성능을 비교해 잔류농약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제작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능성 나노입자 응집, 하이드로겔 비색반응, 측면유동 면역분석, 종이 기반 화학센서와 휴대용 디지털 판독기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비색센서 개발 및 현장진단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수험생 1인당 2022 대입수시 4.8곳 지원

대교협, 총 지원건수 220만건
6회 초과 위반자 342명에 예방조치

지난달 14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진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이 1인당 평균 4.8개의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지원 가능한 6회를 넘겨 초과 지원한 수험생은 342명이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19만 9964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7회 증가한 4.8회로 파악됐다.

대교협은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42명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했다. 대교협은 지난 7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시모

집을 실시한 208개 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해 총 지원자 45만8723명 중 342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하고, 해당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해 지원 횟수 초과 수험생에게 확인 후 접수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학년도	지원인원	지원건수	1인당 평균 지원횟수	위반 사전 예방자
2022	458,723명	2,199,964건	4.80회	342명
2021	448,678명	2,121,694건	4.73회	337명
증감 (전년대비 %)	+10,045명 (2.24% 증가)	+78,270건 (3.69% 증가)	+0.07회 (1.48% 증가)	+5명 (1.48% 증가)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6회를 초과해 지원한 원서부터 접수가 취소된다. 만일 이를 위

반해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75.7%인 26만2378명이다. 지난해는 수시모집으로 44만8678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41.5%인 18만6300명이 줄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B2B 전직자 교육시장 확대 추진

고령사회연구센터-GS ITM, 협약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산하 고령사회연구센터는 GS ITM(지에스아이티엠)과 최근 고려대 청산MK문화관 대강당에서 화상 기반 B2B 전직 지원 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 하에 전직자 교육 과정 공동개발 및 B2B 전직자 교육 시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직 지원 서비스 의무화 및 언택트 시대 이슈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 개발을 목표로 양사의 노하우를 교류할 예정이다.

특히,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자립을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 과정 개발에 보



협약식에서 정보영 GS ITM 전무(왼쪽)와 채성식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다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GS ITM은 디지털 교육 방식이 익숙하지 않는 신중년층을 위해 직관적인 기능과 화면으로 구성된 기업교육 플랫폼 '갯스마트'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12개 강좌 일반에 공개

K-MOOC 플랫폼서 무료 수강

서울사이버대학교의 12개 강좌가 K-MOOC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사이버대는 11일 K-MOOC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면 12개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강좌는 개별강좌로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상담자 대화법(상담심리학과 김환·한수미 교수) ▲빨

주노초과남보 나의 삶 속의 색(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외 2인) ▲시파라 길따라(웹·문예창작학과 김용희 교수 외 2인)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군대이야기(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 외 5인) ▲3D프린터! 아이디어를 출력하라(뷰티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 ▲사이버상담 개론(상담심리학과 한수미·김환 교수)이 있으며, 상담심리학, 색채학, 문학, 공학 분야 등 일상생활부터 직업교육까지의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이현진 기자

그리드위즈, 울산대 지원 전기공학부에 2천만원 전달

울산대학교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그리드위즈가 전기공학부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리드위즈는 학부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2000만원씩 올해까지 모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발전기금은 전기공학부 기금으로 조성돼 학부 교육 인프라 구축·연구 환경 개선·학부 실험실습에 필요한 지출 등 다양한 면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